

“당 유입된 돈 없어”...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전면부인

진상조사단장 이상돈 최고위원 중간 조사결과 발표

국민의당은 15일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 “홍보업체의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민의당의 매체광고 대행사인 S사와 선거공보 대행사인 B사가 각각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1억1000만원과 6820만원이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왔는지를 조사하는 데 집중해왔다. 선관위는 이 자금을 사실상 국민의당으로 들어간 리베이트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당과 S사와 계약을 맺은 데 이어 S사가 브랜드호텔과 하청 계약을 맺은 3차 계약관계에 대해 “광고 대행업체에선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 절차”라면서 “S사는 브랜드호텔이 선택한 회사로 S사에서 광고를 집행하고 (이를 통해 받는) 광고대행 수수료를 (브랜드호텔과) 나누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S사가 광고대행 수수료를 브랜드호텔과 나누는 데 대해서는 “광고기획에 대한 용역서비스 대가”라며 “방송사 광고안과 인터넷 배너광고안을 브랜드호텔에서 제작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통상 기획 디자인 업체인 브랜드호텔이 선거공보업체 매체광고대행사에 하청을

“광고 대행사 지급 자금은 브랜드호텔 대행 수수료”



이상돈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는 게 정상인데 계약과정이 반대여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가보다 브랜드호텔과 일을 하기로 이미 양해가 된 상황에서 당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애초 김 의원을 국민의당에 소개한 김모 교수와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등이 포함돼 선거 홍보업무를 한 ‘국민의당 TF’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팀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서는 브랜드호텔의 내부 팀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6000만원의 체크카드가 리베이트로 ‘국민의당 TF’로 들어왔다는 선관위의 발표에 대해서는, “S업체가 카피라이터에 (별개로)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체크카드를 발급은행에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용역 대가라면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해해주실 게 젊은 사람들이 선관위에 불려가고 ‘패닉’에 빠졌다. 벌써 이게 한 달 전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이처럼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나섰으나 이번 진상조사단의 중간 발표 과정에서 사건의 연루된 당사자인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 없이 일부 관계 업체에 대한 면담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단은 선관위가 박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을 리베이트 사전 지시 및 논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해 자체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B사의 경우는 아직 면담도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당이 ‘청년 대표’로 발탁한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이면서 청년 몫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 청년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애초의 취지에서 멀어지는 것은 물론, 검증 부족으로 각종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청년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까지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임진각 비대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전망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압축키로 4명 이상일뎌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8월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출마하면 예비경선을 거쳐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더민주의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도 예비경선을 통해 3명의 후보가 본선에서 경합한 바 있다.

당시에는 박지원·이인영·문재인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고, 박주선·조경태(선수·가나다순) 후보가 탈락한 바 있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최고위원제 대신 대표위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확정지었다. 권역별 대표위원 5명은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 여성, 노동, 청년, 노인, 민생 부문에서 부문별 대표위원 1명씩 5명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부문별 권리당원 30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권리당원은 기준일의 6개월 전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했다.

대선 노동·민생 부문은 권리당원 30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전대 후 3개월까지 유예를 두기로 했다.

대표위원 역시 당 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거치기로 했다. 대표위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송옥주 대변인은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최대한 준수하는 원칙 아래 지도부 선출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진석 협치 김종인 경제 안철수 개혁

국회 대표연설 키워드

개혁 언급 여부도 관심

오는 20일부터 제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3당 대표의 연설 내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현재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키워드는 ‘협치’·‘경제’·‘개혁’이 되고 개혁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번갈아 했지만,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로 진입한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20일, 더민주가 21일, 국민의당이 23일 대표연설을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단을 선다. 집권 여당의 원내서열인 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3당 구도에 필요한 미덕으로 불리는 협치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당내 계파 청산과 전당대회를 앞둔 당의 혁신 등을 다짐하는 한편, 민생 해결에 집중하는 ‘일 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혁을 언급할지도 관심이다.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나선다. 경제 전문가 출신답게 연설 핵심키워드는 ‘경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평소 신념”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자금 지원에만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안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평소 강조해 온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민생 문제의 우선적 해결, 국가 차원의 미래 준비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각종 정치 개혁 과제도 연설 주제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푸른 하늘에 구름이 그려 놓은 눈부신 풍경



김은영 '그림 생각'

(158) 유월

“유월이 오면/항기로운 풀썩에 그대와 함께 앉아 있으리//술바람 부는 하늘에 흰 구름이 지어놓은/눈부신 공전을 바라 보리//그대 노래 부르고 난 노래를 짓고/온종일 달콤하게 지내리//풀썩 위 우리들의 보금자리에 누워/오, 인생은 즐거워라! 유월이 오면<로버트 브리지스 작 ‘유월이 오면’>

순전히 한편의 시를 좋아해서 유월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이미 풀썩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유월의 계절은 무더운 여름 한 가운데에 있지만 내게 유월은 언제나 계절의 여왕이다.

푸른 하늘을 캔버스 삼아 흰 구름이 그려놓은 눈부신 풍경들을 바라보노라면 유월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흥흥한 세상 속에서 화평한 시절을 열망하는 마음은 구름 되어 두둥실 하늘 가까이 날아오르는 것 같다.

‘구름 작가’ 강운(1966~)의 ‘바람 나무’(1997년 작)는 20여 년 전 유월 어느 날 후두둑 내리던 소나기가 그친 이후의 광주전년 수양버들을 구름과 함께 묘사한 작품이다. 버드나무가 하늘을 쓸고, 바람결에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구름이 정처 없다. 무망한 마음을 그려보았다는 작가는 그 시절부터 하늘을, 구름을,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고 싶었던 것일까.

일찍이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해남, 담양, 동복 등지로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하던 작가가 마음을 오래 빼앗겼던 풍경은 해남의 하늘이었다고 한다. 하늘을 통해 시간, 공간, 빛의 변화를 관찰



강운 작 '바람나무'

하였고, 구름을 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적 느낌을 구하면서 삶과 자연의 순환도 함께 상상하게 된 것이다.

자연 속 비정형의 형태에 매료되면서 유화로 구름을 그렸던 작가는 10여 년 전부터 유화 물감에서 한지로 재료를 바꿨다. 표구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배접의 흔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찰나적 시간을 붙잡을 수 있었던 작가는 한지를 잘게 오려 겹겹이 붙이기를 반복하는 기법을 통해 구름의 입체감과 바람결 따라 몽실몽실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회화적 느낌으로 담아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 계약금 5% 정액제
-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 중도금 무이자
-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